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7-8월호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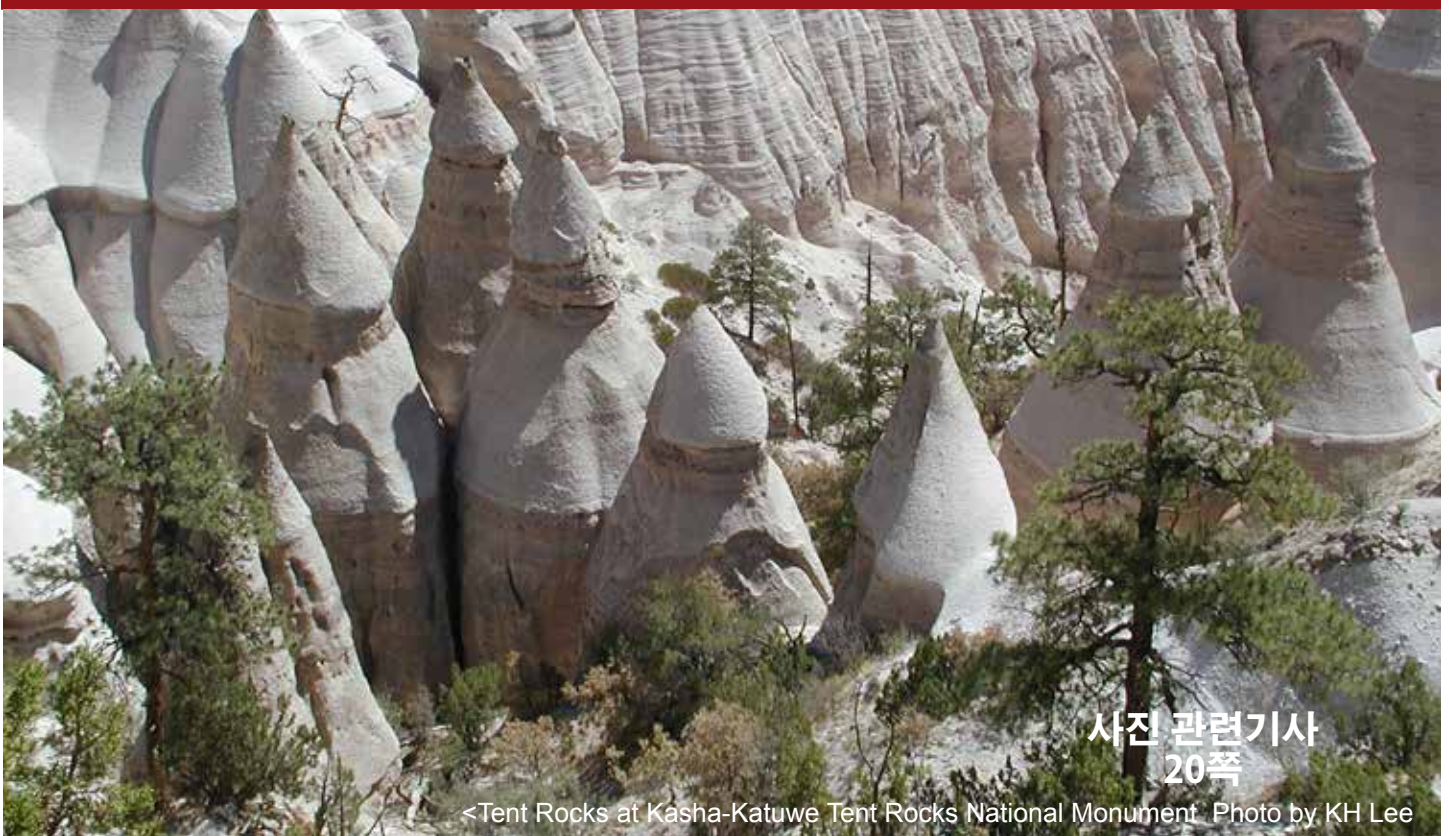


사진 관련기사  
20쪽

<Tent Rocks at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Photo by KH Lee

## 교민 여러분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교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어려움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긴 가뭄 끝에 간신히 고갈을 했지만 여전히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5월 6일에 열린 아시아 페스티벌에 한인회 예무단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5월 19일(토)에는 NM Veterans Memorial Park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김한나 씨와 함께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6월 6일에는 어버이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디아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6.25를 기념하여 참전용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에 타노안 클럽(Tanoan club)에서 LA 총영사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뉴멕시코의 골프 애호가들의

## 주요내용 CONTENTS

- 한인회소식 | 교민여러분 | 문상귀 :1
- 한인회소식 | 골프대회/모국방문/베트남관광 : 2
- 지역사회소식 | i globalquerque 한국밴드공연 :3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 소식 :4-6
-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교회 소식 :7-8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소식 :9
- 칼럼 | 행복합시다. | 김기천: 10
- 수필 | 심청이 아버지 | 이정길 : 11
- 선교보고 | 나바호선교의 첫발 |이명길 :12
- 지상설교|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이태길 :15
- 기도문| 기도 | 권구자 : 16
- 수필 | 즐거웠던 탁구대회 | 김준호 :17
- 생활상식|행복한 미국생활#19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18
- 관광여행 | 텐트록스 내셔널 모뉴먼트 |이경화 :20
-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자동차 번호판 상 :22
- 수필 | 향수 |이명길 :23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6-27



## 한인회장 인사

1페이지에서 계속)

참여를 통해 교민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후원금과 수익금을 통해 한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11월에 있을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6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상 한인회에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2018년 한인회 골프대회

한인회는 7월 23일 월요일에 타노안 클럽(Tanoan club)에서 LA 총영사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골프대회는 작년 10월 UNM South Golf Course에서 개최한 이래 두번째 행사이다. 행사를 위한 후원금은 7월 18일까지 접수한다. 200불을 후원할 경우 홀에 후원인의 이름을 표시한다. 참가비는 팀일 경우는 160불, 개인은 80불이다. 후원금은 백금스폰서에 1,500달러와 골든스폰서 천 달러, 동스폰서 500달러를 받는다.

문상귀 회장은 “뉴멕시코의 골프 애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교민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후원금과 수익금을 통해 한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

## 2018년 대한 노인회 모국방문

대한 노인회와 미주 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아주 투어가 함께하는 제10회 모국방문 관광여행 일정이 발표됐다. 9월24일-10월2일까지 7박8일 간의 여행을 LA에서 출발 할 경우 참가비는 \$2,269.00 이라고 한다. 서비스피는 하루에 \$10로 별도 추가된다.

관광 코스 내용을 보면 부여, 공주, 무주, 남원, 하동, 여수, 진주, 통영, 거제, 부산, 제주등이 포함된다. 참가비의 포함사항은 항공료,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가 포함된다.

문의 사항은 US 아주투어 담당자 : 엔지 장, 켈리 장, 피터 김, 헬렌 박에게 하면 된다.

전화: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

## 대한 노인회 베트남 관광

제10회 모국방문 관광에 추가로 베트남 하노이 관광을 할 수도 있다. 추가 비용은 \$360.00이



**2018 Golf Tournament**  
Hosted by KAANM

**July 23, 2018**  
At Tanoan Country Club

**Platinum Level**  
\$1,500 (Hole Signage, 2 Teams of 2)

**Gold Level**  
\$1,000 (Hole Signage, 1 Team of 2)

**Silver**  
\$500 (2 Hole Signages)

**\*HOLE SPONSORSHIP INFORMATION \***  
**Hole Sponsorship—\$200**  
Signage will be displayed at your sponsorship hole(s).  
Sponsorship payment must be received by July 18, 2018!

**Team information:**  
\$160 per team or \$80 per person  
Check-in: 12:30 p.m.  
SHOT GUN Starts: 1:00 p.m.

**Entry fee includes the following:**  
- Green Fees & Cart  
- Range Balls, Lunch & Dinner

**CALL 505-991-8888**  
for more info

**COMPETITIVE FLIGHT:**  
2-Person Scramble  
Blind-Nine

**OTHER FEATURES:**  
Longest Drive  
Closest to the Pin  
Hole in One

*Additional prizes will be awarded also!*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 앨버커키에서 열리는 'i Globalquerque!' 에 한국 밴드 공연

한국 밴드의 공연에 목마른 교민들을 기쁘게 할 독특한 공연이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14회째 세계 음악과 문화 행사인 iGlobalquerque!를 National Hispanic Cultural Center(1701 4th St SW, at Avenida César Chávez)에서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합니다. 오후 4시에 개장하며 공연은 금요일은 저녁 6시 20분, 토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 밤 11시 40분에 마칩니다. 자세한 정보는 Global Fiesta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 행사에 한국의 독특한 퓨전 음악 그룹 Coreyah가 함께 합니다.

클래식 악기와 전통 악기, 보컬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융합시킨 밴드입니다. Coreyah는 한국의 전통 민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앵글로 아메리칸(Anglo-American) 록, 발칸 집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음악 장르와 같은 다양한 세계 음악 유산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한국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래야의 멤버는 김동근 (대금, 소금, 통소), 경이(피커션), 정하리(거문고, 양금), 김초롱(장구, 징, 팽과리), 함보영(보컬). 박상흠(기타)입니다. 2010년 데뷔한 이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음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2011년 북촌 창우 극장 주최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새로운 한국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KBS의 생존 밴드 쇼인 "Top Band II"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이 현란한 록 음악만큼 주목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14년 KBS 국악대상 단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래야는 2010년 결성된 6인조 국악/월드뮤직 그룹으로 옛 고 구, 올 래 來, 끌어당길 야 똘 를 써서 옛 것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해온 감성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악 연주자, 소리꾼, 무용, 연극 음악 감독, 브라질 민속악기 연주자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고래야는 국악에 바탕을 두고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의 포크 음악(Koren Folklore Music)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래는 행운의 상징인 '고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동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g2fH6jCu5Vc>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스케줄은 <http://www.globalquerque.org/schedule/#coreyah>에서 볼 수 있고 티켓은 <https://tickets.venndini.com/ticket->과 NHCC Box Office (505-724-4771)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NHCC 오피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엽니다. 6월 24일 전에 구매할 경우 이틀 성인 47달러, 하루 32달러, 15세 이하 어린이 이틀 25달러, 하루 16달러, 5세 이하는 무료입장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이틀 성인 59달러, 하루 성인 37달러, 15세 이하 이틀 30달러, 하루 19달러입니다. 공연 당일 이틀 성인 69달러, 하루 42달러, 15세 이하 이틀 35달러, 하루 19달러입니다. 행사에는 이들의 공연 외에도 전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합니다. ■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5월-6월)

### 2018년 아시안 페스티벌



아시안 페스티벌이 5월6일 오전10시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뉴멕시코 재향군인 기념공원 (NM Veterans Memorial Park)에서 열렸다.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이희정 예술부장이 이끄는 예무단의 이희정, 이영혜, 김옥선, 박애나, 지나 씨의 부채산조가 있었다. 김옥선, 이희정 씨의 신아리랑과 또 다른 부채춤 공연도 있었다. (출처: 아리조나 타임즈5-9-2018) ■



### 김한나 씨 뉴멕시코 방문해 참전 용사들 위로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NM Veterans Memorial Park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김한나 씨가 뉴멕시코를 방문했다.

김한나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 촉구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26개 참전국을 순방한 전 찰스 랭걸 하원의원 수석보좌관이자 리멤버 727 대표이다.

그는 4월 27일부터 휴전 일인 7월 27일까지 미주 50개 주 기념비 순방 및 참전용사 위로와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 설립을



도우려고 대 장정을 시작했다. 올해는 한국 전쟁 휴전 65 주년으로 참전 용사들이 평균 85세 이상 고령이다.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도 매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을 순방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한국 전쟁 기념재단(이사장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주관하는 '추모의 벽 (Wall of Remembrance)' 건립에 기금 모금을 돕고자 한다.

리멤버 727 대표 김한나 씨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26개국 6.25 참전국 모두를 순방하여 전 세계 참전용사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달하고 그들의 소원인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사진에 담아 한국 국회에서 전시회를 하고 또 주요 TV 방송과 주요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대학원 재학 중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7월 27일을 한국참전 용사 인정의 날로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2009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발의하여 준 찰스 랭걸 의원과 인연으로 홍보실장 및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재직 중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2010) 및 한반도 평화 통일 결의안(2013)과 재미 교포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2016) 등 다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종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하게 하였다. 또한, 2008년에 리멤버 727단체를 설립하여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5월-6월)

### 조규자 분회장 평통 세계여성 위원 콘퍼런스 참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2018년도 평화통일 세계여성 위원 콘퍼런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여성!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다'로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주관했다.

뉴멕시코에서는 조규자(전 한인회장) 뉴멕시코 분회장 및 차세대 부회장이 콘퍼런스와 미주지역 회장단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각지에서 43개 협의회 여성 자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였다. (아리조나타임즈 6-13-2018) ■



많은 청년과 매년 한국전 휴전일 7월 27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워싱턴에서 주최해 왔다.

이번 김한나 씨의 미주 50개 주 참전용사 순방 목적은 모든 이의 소원인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해 휴전 일인 727 을 종전 및 평화의 날로 승화시키고자 지난 10년 동안 활약한 마지막 노력이다. 김한나 씨는 “2008년 평화 통일이란 꿈만 갖고 리멤버 727을 시작하였을 때 적극 격려해주신 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비록 젊은 2 세이지만,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했다.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문상귀 한인회장과 윤태자 부회장 등 임원, 이사, 한인 회원 15여 명과 참전 용사 15여 명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전쟁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 후 한인회가 준비한 식당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점심을 나누고 헤어졌다.

(아리조나타임즈 5-24-2018) ■

### 주님의 교회 에스더 선교사 부친 전백운 목사 100년의 삶 마감

주님의 교회 에스더 선교사의 부친인 전백운 목사의 장례식이 6월 23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covina hills의 forest lawn에서 있었다. 전백운 목사는 1919년 9월 4일 충남 서산에서 출생 2018년 6월 20일 새벽 1시 45분 향년 100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유족으로는 90세의 이흥련 사모와 2남 5녀와 손주들이 있다. (아리조나타임즈 7-5-2018) ■



### 뉴멕시코 Best High Schools 선정

뉴멕시코의 189개 고등학교 중 28개 학교가 올해 U.S. News Best High Schools에 올랐다.

이 결과는 전국 2만500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분석한 전국 순위이다. 뉴멕시코주의 학교 중 약 15%가 들어가긴 했지만 인접한 다른 주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 기록이다.

콜로라도는 17%가 랭킹되었다. 유타는 30%, 아리조나는 26%였다. 수년간 최고에 올랐고 4년 동안 금배지를 받았던 앨버커키 수학과과학(전문)학교(Albuquerque Institute for Math and Science)는 이번에도 뉴멕시코에서 랭킹 1위를 차지했고 전국에서는 223위를 차지했다. ■

#### TOP 10 NEW MEXICO HIGH SCHOOLS

STATE RANKING	SCHOOL	U.S. RANKING
1	Albuquerque Institute of Math and Science Albuquerque	223
2	Academy for Technology and the Classics Santa Fe	474
3	Los Alamos High School Los Alamos	792
4	Early College Academy Albuquerque	1,521
5	La Cueva High School Albuquerque	1,799
6	Ask Academy Rio Rancho	1,923
7	Cloudcroft High School Cloudcroft	2,317
8	New Mexico School for the Arts Santa Fe	2,560
9	Santa Teresa High School Santa Teresa	2,664
10	Texico High School Texico	N/A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 한인회, 6월 6일 어버이 회원들과 소풍

뉴멕시코 주 한인회에서는 6월 6일 수요일, 산디아산 푸트힐에 있는 엘레나 가예고 피크닉 장소(Elena Gallegos Picnic Area)로 소풍을 다녀왔다.

문상귀 한인회장은 “맑은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이때 어버이 회원들을 모시고 야외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했다. 얼마 전 어버이회 회장으로 임명된 유금님 회장은 “어버이회 담당 윤태자 부회장과 임원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했다. 30여명의 어버이 회원은 준비해온 삼겹살과 콩치구이를 비롯한 풍성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야외회를 즐겼다. ■



### 알버커키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

알버커키 한인 가톨릭 공동체에서는 지난 6월 17일 마산교구 소속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방문하셔서 고해성사와 한국어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20여명의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알버커키 한인 가톨릭 공동체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성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3달에 한번씩 한국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성당에서는 7월 첫째주에 겔럽에서 뉴멕시코 인디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소피아 수녀님을 돕기위해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



### 뉴멕시코 원주민 돕기 골프대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천주교회가 오는 7월 8일 오후 1시부터 뉴멕시코 원주민 돕기 골프대회를 스프링스 렌치 골프클럽에서 개최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한인 성당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신자들은 매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골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캠프를 지원하는 등 성당을 위해 수익금을 제공해 왔다.

최근 최경식 주임신부가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공소 미사를 다니면서 현지에서 피정의 집을 운영하며 원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이소피아 수녀님의 활동을 알게 되었다. 이 소피아 수녀님은 겔럽교구의 피정 센터를 맡으면서 원주민들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비용은커녕 허허벌판에서 트레일러 생활을 하며 물과 전기의 혜택도 없고



## 뉴멕시코 지역 한인교회 소식

### 클로비스 한인교회 목회자 코칭 세미나 열어

. 지난 6월 18부터 20일까지 클로비스 한인교회에서는 미국 남침례회 북미선교부 교회전략가로 15년간 사역하셨고, 지금은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부흥(Reviving),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Refreshing)를 4세대(4th Generation)에 걸쳐 이루어 “3R 4G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린오션 프라임 코칭 (GO Thrive Coaching)>의 국제대표이며, 남침례회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의 코칭분야 전문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석 정문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주변의 여러 한인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엘파소 소망 장로교회, 러북 침례교회와 뉴멕시코주 라스 쿠르세스 침례교회,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 산타페 장로교회 목사님부부들이 참여해서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3일간의 목회자부부 세미나 기간동안 우리 클로비스 한인교회에서는 매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 다양한 음식으로 목회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접대하였습니다. ■



의식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원주민들이 정부 보조금으로만은 생활을 꾸리기 어렵고 도로도 포장되어있지 않아 눈비가 조금만 와도 학교가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러니 일을 구할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라고 이 수녀는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든 원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던 이 소피아 수녀는 피정의 집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 전했다. 이어서 이 수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신부님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인사했다.

성당 골프대회에서는 좋은 취지로 마련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돕고자 최대한 저렴한 참가비를 책정했다고 한다. 참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따로 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대회 관계자는 전해왔다. 수익금과 후원금은 새 크리드 하트 피정 센터를 통해 뉴멕시코주 원주민을 위한 사목에 기부된다. (출처: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신문 기사정리: 이성희) ■

## 뉴멕시코 지역 한인교회 소식

### 산타페 한인교회 임직식 예정

산타페 한인교회는 8월5일(일) 오전 11:30에 장로 임직및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21년만에 세명의 장로(이윤정, 장종혁, 조용일)와 다섯명의 안수집사(임정호, 장희진, 조영랑, 정순이, 차진주)를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문의 ; (505) 699-4775 ■



(왼쪽부터)이윤정, 장종혁, 조용일



(왼쪽부터) 임정호, 장희진, 조영랑



(왼쪽부터) 정순이, 차진주

###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 6.25 참전용사 초청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지난 6월24일 주일 예배를 68주년 한국전 기념예배로 드리면서 뉴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중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한국전을 소개하는 시간과 회장이신 스탠 재로키씨의 인사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요지를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68년전 한국전에서 공산군을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게된 사실을 잘 알려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전용사를 잊지않고 초대해준 교회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신옥주 권사께서는 오신 손님에게 푸짐한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간짜개,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 뉴멕시코 지역사회 소식

###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라이언 목사 방문

탈북자 선교회인 두리하나 선교회 대표 천기원 목사님께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알버커키를 방문하였다. 두리하나를 지원하는 Durihana Mission 대표인 라이언 목사님께서 지난 6월 7일에 가족과 함께 한국 두리하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한 것이다. 라이언 목사님은 산타페에 있는 City of Faith 교회 담임목사로 탈북자에 대한 소명을 갖고 두리하나 선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7월 1일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라이언 목사님은 기근에 빠진 형제들을 구원시킨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미주 한인들도 탈북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선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천기원 목사님은 두리하나에서 지원하고 있는 탈북자 자녀 학교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받으며 변화되고 있는 학생들을 소개하였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두 분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 어버이회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부회장



어느새 한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유난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어버이회에서는 무더위를 식혀줄 야유회를 다녀 왔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요리하기 힘든 찜구이와 삼겹살을 굽고 조영희 씨의 리드로 한바탕 춤사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각 단체와 교회들, 가톨릭 공동체, 개인들이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후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버이회가 이어질 수 없었다는 걸 모두가 잘 압니다. 정성과 사랑을 쏟아주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 감사함을 보냅니다. 식사 후원은 아리랑 마켓 차성희 님, 이희정 님, 이경화 장로님, KOWIN, 김희수 님, 감리교회, 조영희 님, 윤태자, 이영혜 님, 박안나 님, 이명길 목사님, 가톨릭 공동체, 문상귀 회장님, 김경숙 이사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현금 후원은 유흥례 님, 김문자 님, 차성희 님, 서순달 님, 조은순 님, 김경숙 이사장님, 유금림 님의 친구분들이 해주셨고 물품후원은 양익환 님, 김희수 님이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았고 봉사자들은 어버이들의 사랑과 관심에 힘을 얻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속에 어버이회가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위안부 문제 알리려 美대륙 자전거 횡단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한국의 두 청년이 앨버커키에 도착하여 7월4일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백석대 (신학전공) 졸업생인 백현재(26)씨와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인 이호준(23)씨는 교우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의 잘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저들의 노력에 교우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두청년은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22일 LA를 출발하여 9월4일까지 80일에 걸쳐 자전거로 뉴욕까지 6,000km를 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님택에서 이틀간의 숙식을

제공 받아 재충전 한 다음 이어서 산타페를 거쳐 오클라호마, 캔사스시티 방향으로 달려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 청년이 수행하고 있는 '3A(트리플 에이) 프로젝트'는 'Admit'(2차대전 당시 식민지 여성들에게 성노예 역할을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Apologize'(일본 정부는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Accompany'(위안부 할머니들의 혼과 마음을 안고 동행한다)라는 세 영어 단어의 머릿자를 딴 프로젝트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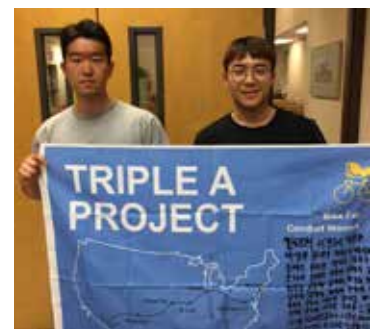


사진: 수요예배에서... (왼쪽부터) 이호준, 백현재

## 행복합시다

주일 아침.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누군가가 철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뒤에 오시는 교우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이겠지요. 행복합니다. 차를 몰고 교회 옆 주차장으로 갑니다. 벌써부터 아스팔트 포장에 안 된 빈 터에 몇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교우들이 깨끗하게 아스팔트 포장된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배려하기 위해서이겠지요. 행복합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서면 벌써부터 찬양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성가대실에서는 성가대원들의 노래와 본당에서는 찬양팀의 노래가 마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교우들을 환영하는 듯합니다. 일찍부터 온 아이들은 교회 복도를 이리저리로 뛰어다닙니다. 주일 아침 교회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침 9시 45분에 시작되는 영어예배도 화기애애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사회자의 인도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지요. 설교 말씀은 11시 예배 설교 내용과 같습니다. 영어예배는 시간이 짧아 설교 내용도 당연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영어 예배를 드리고 11시 한국어 예배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예배에서는 영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요.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 예배를 두 번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 동시통역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심지어는 회의 할 때에도 동시통역하실 분들이 줄을 서있지요. 주로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통역 봉사자들이지요. 한인교회이지만 한국말을 모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가 우리교회입니다. 언어로 인한 장벽과 차별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우리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 김기천 목사, 이석종 목사님, 이명길 목사님, 이태길 목사님. 저 김 목사만 현역목사이고 이 목사님들은 은퇴목사님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 김 목사만 감리교 목사님이고 다른 세 분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들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교단의 장벽이 없는 교회이지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교회는 웃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 전부터 서로 만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도 기쁨과 감동이 있지요. 어제는 주일 예배를 거의 2시간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 이경화 장로님의 나바호 선교 교육, 산타페 Ryan 목사님의 인사말, 천기원 목사님의 두리하나 선교회 소개 등 특별 순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감동과 감사의 예배였지요. 예배 후에 Sam 장로님이 이전에 오순절 교회 다녔을 때에는 주일 예배를 3시간씩 드렸으며 웃으면서 귀속말을 해주셨지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여기저기 서로 모여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현재로는 웃음소리가 가장 밝고 크고 명쾌한 사람은 성은미 집사님이지요.

올해 2018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표어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행복합시다”라고 대답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더욱 만나고 싶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아닐까요? 교회 있으면 집에 가기 싫고, 집에 있으면 교회가고 싶은 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아닐까요?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심청이 아버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무등산 아래 산수동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 시골 마을 초가 지붕 밑에서 살던 것과는 많이 다른 아파트 생활이었지만, 더러 비슷한 것도 있었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모습은 시골 마을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파트 생활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곳은 조그맣고 아담한 아파트였으며 사람들이 순박하고 정다웠다.

모든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고, 사는 곳을 보기 좋고 살기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았다. 처음에는 서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고, 그런 다음부터는 서로 연락하면서 우정을 두터이 했다. 시골집에서는 이웃들을 초청하려면 일일이 찾아가서 말로 전해야 했지만, 아파트에서는 인터폰을 사용하면 되는 편리함도 있었다.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자투리 땅에 채소를 심어 나누어 먹었다. 친한 사람끼리는 색다른 요리라도 하면 반드시 나누어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김장철에는 집집이 손맛이 다른 통김치를 나누어 먹는 맛도 즐겼다. 기본 양념에 조거나 동태를 넣어 솜씨를 부린 김치는 익혀서 먹어야 제맛이지만, 굴이나 새우젓을 넣은 담백한 김치는 생김치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았다. 바로 윗층에 살던 김 과장은 대단한 주당에다가 식도락가였다. 도살장을 직접 찾아가 갓 잡은 소의 간이나 제비추리를 사오는 날에는 반드시 자기집으로 나를 불렀다. 술을 즐기던 나는 종종 그의 술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조카며느리의 음식 솜씨는 뛰어났다. 명절이나 제사날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모두 조카의 집에 모이고는 했는데, 실컷 먹었는데도 싸 주는 음식이 많아서 그걸 안주로 친구를 초대해 술을 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함박눈으로 뒤덮인 무등산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며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때가 가끔 그리워지기도 한다. 여동생도 솜씨가 좋아서 번번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했다. 우리 내외는 참으로 행복했다. 갖가지 음식을 즐기면서 내가 마치 심청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고, 그렇게 농담도 하며 살았다.

정년을 맞이한 뒤 곧바로 옮긴 곳이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다. 교포의 수가 많지 않아 서로들 잘 어울려 지낸다. 길게는 50년, 짧아야 20년 전에 한국을 떠난 분들. 특히 나이드 분들이 쓰는 말에서 번번이 내 젊었을 때를 떠올리고는 한다. 한인회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반드시 잔치를 벌여,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도 보게 해준다. 그리고 한가위 대신 여는 추수 감사절 잔치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음식을 대접하면서, 어려웠을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해마다 김치 축제도 열어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습을 널리

알린다.

노인회를 따로 둔 한인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점심을 마련하여 대접하는데, 유달리 손이 많이 가는 한식을 만들어 함께 즐긴다. 다른 주에서 살다 이사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노인들이 이처럼 대접 받는 곳은 미국을 다 돌아봐도 여기 뿐이라고 한다. 십 년도 넘게 계속되는 이 행사는 이제 관행이 되었고,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행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봉사하는 젊은 교포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진다.

어찌다가 홀몸이 되고 보니 사는 일 모두가 어쭙기만 하다. 꼭 필요한 몇 가지 도구만 사용하면서 사는 내 삶이, 애들의 소꿉살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논농사를 주로 하던 고향 마을의 집들은 거의 모두 큰 마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당은 놀이터이기도 해서 사내아이들은 자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며 놀았고, 계집애들은 꼬막 껍데기며 사금파리나 자질구레한 그릇 따위를 늘어놓고 퍼질러 앉아 소꿉질하며 놀았던 것이다.

주위에서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전과 달라서, 마음이 착잡해질 때도 있다. 옆집에서 사는 사위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뒷마당에 바베큐 그릴과 스모커를 갖추고 살면서, 주말이면 빠지 않고 요리를 해서 함께 먹은 다음 남은 음식을 싸 준다. 노인회에 참석하여 점심을 먹는 날이면, 할아버지에게만 준다면서 먹기 전에 따로 챙겨 둔 음식을 헤어질 때 손에 쥐어 주고는 한다. 늘 다니는 식품점에서도 반찬을 푸짐하게 주는가 하면, 팔려고 만들어 놓은 김밥을 선뜻 집어 주면서 점심 한 끼라도 때우라고 한다.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주위에 깊이 감사하면서, 때로는 내가 진짜 심학규가 되어 버렸구나 한다. ■



## 나바호 인디언 선교의 첫발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선교사)

지난 6월4일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선교부 주최로 9명의 교우들이 함께 깬럽 북쪽 지역에 있는 Sheep Springs를 방문 나바호 인디언 선교의 첫발을 디뎠다. 작년에 Shiprock에서 선교하는 전종범 선교사의 전도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지만 Sheep Springs지역나바호 인디언을 위한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모았던 옷가지 25 상자, 당일 점심을 함께 나눌 음식 등을 싣고 참여자 모두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7시 15분 쯤 교회를 출발 Unser와 40번 국도가 만나는 곳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깬럽을 향해 질주, Gallup에서 491번 도로 북쪽으로 49 마일 떨어진 목적지로 장장 191마일 거리를 트럭 2대와 교회 차 1대가 이동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나바호족이며 우리 교회에 출석 나바호 선교 방향을 정하게 했던 세이디(Sadie James)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즉시 우리 팀 일부는 Sheep Springs 인디언 센터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김기천 담임 목사님은 근방의 각지에서 차로 혹은 걸어서 온 나바호 인디언 들과 함께 영어 예배를 시작했다. 한승우 전도사님의 기타연주로 쉬운 영어 가스펠 송을 인디언과 함께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펍 인상적이었다. 나바호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어 찬송을 즐기며 함께 불렀다. 목사님은 저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강도 있게 선포하고 기도하였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세이디 자매님이 인디언 방언으로 하는 간증이 있었고 이어 김목사님과 이명길 목사가 자원하는 20여명을 안수 기도해주었다. 대부분 몸이 아파 병 낫기를 원했으나, 돈이 없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며 집을 고치기 위해 차를 살 수 있도록 돈이 생기도록 기도 부탁을 했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었다. 기도중 잊어버리고 차 생기도록 기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다시 기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차 기도하는 일도 있었다. 기도 제목을 듣는 동안 이들이 절실하게 “비”를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오랜 가뭄에도 별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저들이 기르는 목축들을 어찌 먹일 수 있을까? 저들에게는 비가 실제적인 생명이었고 삶의 원천이었다. 우리 모두가 비를 주시도록 엘리야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예배 후 선교부장 황경희 집사님이 40명 쯤 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카레라이스 점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충분할 줄 알았던 음식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 70명을 넘게 되니 나중에 온 사람은 식사를 못했다.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에 올 때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주면 더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점심을 다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2트럭의 선물을 나눌 때는 80

여명이 넘는 인디언 들이 모여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옷가지들을 골라 가져갔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왔는데 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거의 없어서 작은 인형 몇 개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여자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수집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나바호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이디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다. 세이디는 4년 전쯤 엘에이로 이사하신 최인숙 권사님이 Sandia Trail로 등산할 때 만나 전도하여 교회 오게 된 것이다. 물론 세이디 본가는 나바호 지역 산지에 있지만 알버커키에도 집이 있어 올 때마다 가끔씩 교회에 출석했다. 그의 출석으로 이렇게 나바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나바호 선교를 자청하며 Sheep Springs Center를 빌려 이번 방문 때 쓰도록 알선하고



인근의 동료들을 연락하여 센터에 모이게 할 수 있었다. 세이디 출석으로 시작된 나바호 선교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선교의 출발과 흡사하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선교를 시작 오늘의 서구 문명 발전의 계기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바호 인디언 한 분을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나바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일행은 옷가지 선물 나누어주는 일을 마치고 세이디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왔다. 산 중에 있는 통나무집이었고 비어 있었지만 계절에 따라 올라와 산상의 시원한 통나무집에서 한 철을 지낸다고 한다. 인근의 포장도로에서 비포장 산길을 자동차로 한참 올라갔는데 산 위 평지에 몇 가옥이 함께 있었고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산 위의 작은 평지 저 편에 자리한 펌프로 올린 물이 어찌 시원한지 자연산 산속 생수라 맛이





있었다. 이 물 때문에 몇몇 세이디 친척들이 아직도 거기 모여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외에 사람 한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을 파고 그 곳에서 불을 피워 돌을 뜨겁게 달군 뒤 물을 부어 더운 수증기로 싸우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조금 무너진 굴이지만 수리하여 쓸 수 있다고 했다. 저들도 이런 곳에서 싸우나를 즐겼던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대부분 사막 지대라 물이 귀해 나바호 인디언들은 자주 목욕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한다. 세이디 집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한 후 계속해서 나바호 선교에 역점을 두고 복음 사역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3시 반쯤 집을 향해 출발했다. 참여자 중 몇몇은 신광순, 신옥주 권사님께서 숙회원 성경공부와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해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헤어졌다.

이번 나바호 선교 팀들은 그 다음 주일 예배 후 모여 앞으로 나바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때 우선 나바호 인디언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자고 했다. 첫 강사로 이경화 장로님을 모시고 7월1일 첫 주일 예배 직후 전교인이 듣기로 했다. 당시 촬영했던 영상들을 편집하여 주일 예배 시 온 교우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으며 나바호 인디언 선교팀을 따로 구성하고 교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단기로 반짝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바호 인디언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바호 선교를 교회 주된 선교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사역은 본 교회 선교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이 되도록 다음 몇 가지를 선교의 경험자로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본 교회 교인들이 나바호 인디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선교는 일부 몇 사람들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교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저들을 알고 이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 세미나나 강의 집회를 열어 나바호 인디언의 역사와 문화를 전 교인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이경화 장로님 강의를 필두로 수시 집회를 열어 나바호 인디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 세미나나 강연회는 연차적 사업으로 교인 전체 혹은 나바호 선교부원 훈련으로 도입했으면 한다.



둘째 교인 개개인이 나바호 인디언과 개인적 관계를 설립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2-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바호 인디언을 위한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를 계획하고 이런 집회를 통해 나바호 인디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바호 선교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본 교회가 힘을 기울여 성공리에 모이고 있는 각 속회 성경 공부와 기도회에서 계속해서 나바호 인디언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강연과 기도회 등을 열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나바호 인디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고 저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우러나 열정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선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디언에게 개인적으로 편지 왕래도 하고 기도 짝이 되어 기도 교통도 하고 필요한 신앙적 도움을 주고받고 인디언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디언 선교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선교의 열매는 참여하는 교인들의 사랑의 부피에 비례하여 맺혀진다. 강연과 기도회 선교사역 참여 등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인디언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요사이 많은 교회들이 하는 단기 선교 몇 번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돈과 노력의 허비다. 진정한 선교는 교우들이 사명자로서 사랑이 불타야 한다. 우리 교우 대부분이 일어서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헌신적인 나바호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으면

더 좋다.

필자의 경험으로 본 한국 선교의 자가당착은 한국 교회 대부분이 선교를 부르짖고 입으로는 선교를 앞세우지만 사실은 선교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담임 목사가 선교에 주력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심방하고 기도해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라고 한다. 선교는 돈을 모아 전담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것이고 선교 팀은 현지를 답사하여 저들이 원하는 돈을 교회 이름으로 주면 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니 전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통고도 없이 선교비를 끊어버려 난처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것은 꼭 반성해야 할 현상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선교비를 내지만 자신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크게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선교지 현지 답사가 단순히 즐기는 여행으로 전락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이유이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목표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교는 교인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하며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셋째로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선교의 주된 사역이다. 물질적 도움이나 필요에 따른 봉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진짜 선교의 목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며 이해가 필요하다. 저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일시적 물질적 도움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술과 마약 도박 등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삶을 위해 근면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상복지 증진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미국 정부도 경제적 자립 교육에 중점 두어야지 돈 몇 푼 무상으로제공하는 것으로 그들 잘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돈을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일시적 방편은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교육이며 인재 양성이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 신학교를 많이 세우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신학교를 세우는 돈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인디언 캠프를 계획하고 건물을 지어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영어와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게 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기 동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란 말이다. 우선 현실에 당장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노동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훈련을 마친 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적 자립으로 자기 가정을 보양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과 전통을 교육을 통해 세워주면 저들은 계속해서 경제 자립을 이루고 또한 자신들의 후배들을 교육하여 함께 잘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들 중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하루 속히 발굴하여 Flagstaff에 있는 인디언 칼리지나 미국 공립학교나

대학 등에 보내 지도자로 훈련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저가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바호 인디언은 원래가 유목민이어서 농사짓는 프에블로 인디언과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 나바호 인디언은 가축을 이끌고 풀이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며 사는 유랑민이다. 그래서 프에블로 인디언과 달리 개인 토지 소유 개념이 부족하다. 풀을 찾아 가축의 떼를 이동하며 자유롭게 먹일 수 있는 공통의 큰 땅이 필요하다. 부동산 소유 의식보다 부족 전체가 함께 소유할 나라로 자유로운 목축이 가능하면 된다. 그런 전통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미국의 경제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상 프에블로 인디언은 미국의 경제 구조에 맞춰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바호 인디언이 아직도 더 가난한 것은 이런 이런 사회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 곳이나 무작정 자기 집을 짓고 정부에서 주는 작은 돈으로 연명하며 사는 나바호 인디언에게는 부동산으로 부를 기초하는 미국 시민들이나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의 백성들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넷째로 교회에 영구적 나바호 인디언 선교부를 따로 조직해야 한다. 선교부 직속이든 교회 직속이든 따로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교단적으로 연회나 노회 총회 등에서 지교회의 선교비를 기증 받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교단을 형성해서 교인 개개인과 별 관계없이 교단 선교부만 관련하여 선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근대 선교 정책이 사양길에 들어 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인들의 선교 참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제는 교인 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개교회 선교부원이나 선교팀이 직접 선교하는 길이다. 때때로 선교지를 방문하여 봉사하고 접촉하고 교제하며 직접 선교 사명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참여를 독려하고 기도 요청을 하며 교회의 선교 정책을 숏수범할 수 있는 선교 직간접 동참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런 방법을 통해 얼마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교회가 다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데 나바호 선교만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많은 지역을 몇 번의 현지 방문으로 선교에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선교는 돈이 절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교회 이름 내기 위해 선교금을 작게 나누어 여러곳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는 결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두 군데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교에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다.

뉴멕시코는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이다. 이번 나바호 선교 첫발을 디딘 우리 교회가 성공적 선교 사역을 통해 사막 중심 도시 알버커키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나바호 인디언 선교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주신 목적과 특권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태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성가대 지휘자)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4장 7절 - 21절 말씀입니다.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시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그 심판의 기준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굉장히 따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2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중심에도 사랑이 그 기반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허물을 용서받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한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해 주었던 형들을 무조건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 기도



권구자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권사

오늘은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항상 푸르기만 하던 6월의 하늘에서 어제는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의 땅 알버커키에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이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시간 주님께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 속에 빈곤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꼭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부닥칠 때에는 해결책을 주시옵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길을 살게하여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의 파도가 넘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숨겨진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우리드러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세상 삶에 서 부닥치는 험된 세상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깨달음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천하기에 앞서서 삶에 급급한 간구위 기도만

치우치고 있었음을 고백히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도님들께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로 강하게 붙드시어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때에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여라도 마음에 걸리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주를 맞이 할때에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해하고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에는 기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눈짓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소로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먼저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 실재를 말해야 합니다. 셋째,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7절 말씀에서 8단계의 신앙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로써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그 기쁨 속에 초대 받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음 가득히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를 그 복된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감사와 신앙고백이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수필

# 즐거웠던 탁구대회

지난 4월15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제1 회 복 불복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난 40년이 넘게 테니스를 친 경력이 있으니까 챔피언은 못 되어도 2nd Round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들뜬 마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테니스복을 입고 테니스 신발도 신고 교회에 나 타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 옷차림을 보고 좀 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 장로가 serious 하게 경기에 참여하려는 것인가? 아무렴.

우선 경기장부터 설명해 드리지요. 탁구대는 2대를 친교실 중앙에 설치했고 그 주위에 의자들을 놓아 성도님들이 편히 앉아서 구경토록 했습니다. 한대는 Sakura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재훈 성도님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Bean Bag Toss Game Set을 탁구대 서쪽에 설치했고 또 바둑 Curling Game Set을 Bean Bag Game Set과 나란히 놓고 세 경기를 했습니다. 탁구는 잘 알려진 운동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고 빈 백 경기나 컬 링 경기는 각 감독관이 시범을 보이고 점수를 어떻게 집계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몇 번씩 연습한 다음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탁구 대회가 Main Event라 출전자들의 대전표가 미리



결정되어서 순서대로 시합이 질서 정연하게 잘 진행되었는데 Racket을 출전자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racket 돌림판을 돌려서 선택받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돌림판이 생전 처음 대하는 것이라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 어떻게 이런 기발한 idea를 생각해 냈는지 정말 재미나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림판에 쓰인 라켓은 다양해서 탁구 라켓, 밥주걱, 도마판, 신발, 맨손, 부엌 장갑, 냄비, 쟁반, 배드민턴 라켓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Round 에 한 전도사님과 대결하게 되었는데 제 라켓은 밥주걱이었고 한 전도사님은 자기 신발을 사용하라고 돌림판이 결정해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켓을 정할 때부터 구경꾼들은 폭소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탁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참석한 모두가 재미있다고 손뼉을 치기도 했고 배꼽을 잡기도 했습니다. 또 한쪽 구석에서는 황경희 집사님과 성은 미 집사님은 좀 이상한 복장, 노라고 쓴 빨간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응원을 했는데, 등에는 할렐루야라고 쓰인 복장을 하고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좀 크구나!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시 끌 벽 적 하게 해서 아주 재미가 넘쳤었습니다.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푸근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즐겼습니다. 예배실에서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과는 전연 다른 운동경기장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빈 백 토스 대회와 바둑 컬링 대회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비명을 지르며 꼴 대에 안 들어간다고 야단했고 컬 링 하는 데서는 '영미' 하고 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경기를 땀을 쥐고 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서 최종 우승자와 준우승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제1 회복 불복 탁구 대회 우승자는 한승우 전도사님이고 준우승자는 이철수 권사님
2. Bean Bag Toss Game 우승자는 심강희 집사님이고 준 우승자는 박은성 권사님
3. 바둑 Curling 대회 우승자는 마이크 조 장로님이고 준우승자는 김기천 목사님입니다.

우승하신 분들과 준 우승하신 분들 또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에 동참해 주셨지만 낙방하신 분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 또 이런 단합대회를 가지면 더 재미있는 게임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I am not kidding. 총지휘를 맡아서 여러 가지 재미 만점의 순서를 구상해 주신 이철수 권사님에게 여러 성도님 들을 대표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인 MC 역할을 해 주신 이태길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exciting 한 game 이 진행되는 중에 좀 배가 출출해서

<19쪽으로 계속>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3-5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법 (VAWA)



견우는 지난 주 교회에 출석했다가 우연히 이웃에 사는 김삿갓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삿갓은 시카고 남부 상가에서 잡화 가게를 운영해왔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하고 홀로 되었다가, 작년에 아이가 있는 과부였던 윤춘향과 재혼을 했다고 한다. 김삿갓과 윤춘향은 둘다 견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 했었고 춘향의 자녀인 놀부와 흥부도 교회 중고등부에 출석을 했었다.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견우는 김삿갓과 윤춘향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춘향이 문을 열고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이선생님도 별일 없으시구요? 오랫동안 뵈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신지...?”

“별일은 아니구요. 요즘에 교회에 안나오시길래 무슨 일이있으신가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들어오시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윤춘향은 이견우를 응접실로 안내하고 차를 끓이기 시작했고 그윽한 차향이 이내 방안에 퍼졌다.

차가 끓는 동안 윤춘향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견우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저..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 김삿갓씨와 이혼 수속 중이에요. 그동안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사실은, 김삿갓씨와 저..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해 자주 화를 냈었구요. 때로는 작은 다툼이 발단이 되어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세간 살림들을 던지고 부수는 일도 잦은 편이었어요. 그리고...한달 전쯤 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서 펄펄뛰다가 ...”윤춘향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주먹으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우리 아들 놀부가 말리자 놀부를 또 때렸어요. 이 모습을 본 흥부가 놀라서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이 그 사람을 연행해갔어요..”

이야기를 들은 이견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맘 고생이 심하셨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그동안 맘 고생한걸 생각하면... 아무튼, 이번에 그 사람하고 정리를 할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가지 걱정 되는것이 있네요. 사실은 저와 제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거든요. 그사람이 시민권자라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하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불체자 생활을 면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걱정이네요. 큰아이는 나이가 많아서 어차피 영주권 신청은 안된다고 하지만 둘째는 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큰 일이네요.”

견우는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분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말했다.

“일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가정 폭력 피해자였는데 남편과 이혼후 남편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게 뭐라그러더라...바와(VAWA)라던가? 아무튼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법이 있다더군요. 그리고, 큰 아이 놀부 경우는, 영주권 신청은 아니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라는 것이 있어서 불체는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 청년부 아이들 중에 신청한 녀석들이 몇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야...그동안 어떻게 살지 막막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구요. 내일쯤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예, 내일 한번 연락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는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그 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게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견우는 춘향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뿌듯함이 차오름을 느꼈다.

### 전문가의 한마디

#### 가정 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

VAWA란 구타나 잔혹행위,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에 미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가해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가해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부터 외국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VAWA는 또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단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VAWA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현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러 온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지의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 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 했다면 이혼 2년 이내에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이 이혼의 주요원인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경찰의 사건 보고서(Police Report), 병원기록(Hospital Record)등이 필요합니다.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가정상담소와의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21세 이하만 VAWA를 통한 청원이 가능하지만, 가정 폭력 때문에 청원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 청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자녀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여야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VAWA를 통한 청원을 한 후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이혼하거나, 혹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가해자인 남편이 죽은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해자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여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도 VAWA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2000년에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VAWA청원자는 불법적으로 입국하여도 영주권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법안에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VAWA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경우라도 이러한 가정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배우자의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거나 이를 보고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사건 자체를 진행 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 폭력을 참고만 살지 말고 VAW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VAWA를 잘 사용하면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없이 새로운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 입니다. ■

## 즐거웠던 탁구대회 (17쪽에서 계속)



부엌 있는 쪽에 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린애들이 이은영 집사님이 맛있게 만든 짜배기와 찹쌀 도넛을 먹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기웃기웃했더니 눈치 빠른 MC 박 보검 Senior가 말씀하시기를 ‘80 넘은 할매는 어린 애들 주는 것 주어도 된다’ 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짜배기를 시식했는데 누구 말 처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는 짜배기였습니다. 이 짜배기와 찹쌀 도넛은 우리 교회에 잘 알려진 달인, 이은영 집사님의 솜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마운 분들 있습니다. 신광순 권사님과 신옥주 권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품과 상품권 카드를 도네이슨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 있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방법

프랑스 심장전문 의사 ‘프레데리크 살드만’은 (내 몸 치유력 저자로서 ‘손을 씻자’라는 책으로 전세계에 열풍을 일으킴) 수명 10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하루 8시간이상 잠자지마라
2. 양치질하듯 매일 30분씩 운동하라
3. 식사전 물을 많이 마셔라
4. 식사중간에 5분 정도 쉬어라
5.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라
6. 16~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라

기타,

- 탄음식은 담배 200개비보다 나쁘다
- 번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라
- 냉장고는 한달에 두번이상 청소하라
- 수세미·행주 등 청소용품도 살균 건조하라
- 감기를 앓고난 뒤엔 칫솔을 바꾸라
- TV 리모컨, 휴대전화, 안경 등일상용품을 주기적으로 닦아라
- 매일 아침 사과 한개를 먹어라
- 차를 너무 뜨겁게 먹지마라 ■

# 카샤 카투웨 텐트록스 내셔널 모뉴먼트

(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카샤 카투웨 텐트 록스 내셔널 모뉴먼트(Kasha-Katuwe Tent Rocks National Monument)는 뉴멕시코 주 중북부 지역에 있는 헤이메즈산(Jemez Mt.)남쪽 코치티(Cochiti) 인디언 푸에블로(Pueblo) 땅에 있다. 2001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내셔널 모뉴먼트 (National Monument)(직역하면 국립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이 곳 공원 관리는 연방정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BLM))에서 하고있다. 이곳 공원에는 많은 원뿔 모양의 암석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암석 모양이 마치 인디언의 티피 텐트(Tepee Tent)같다고 해서 텐트 바위, 텐트 록(Tent Rock)이란 별명이 붙었다. 모뉴먼트 이름에는 푸에블로 인디언의 언어인 ‘카샤 카투웨’란 이름도 부쳐졌는데 그 까닭은 모뉴먼트가 코치티 푸에블로 인디언 땅에 위치해 있어 그들이



사진 2: 회색 응회암의 Hoodoo들.

(凝灰岩:tuff)층이 만들어졌다. 화산재와 함께 뿔어져 나온 것 중에는 단단한 돌맹이도 섞여 있었는데 이 돌맹이들이 이곳의 원뿔(Cone) 모양의 암석을 만드는데 요인이 된다. 화산재가 굳어져서 된 암석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비에 씻겨 내려가게 되었으나 화산재 속에 들어 있었던 단단한 돌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응회암이 씻겨내려 가지 않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원뿔 모양의 암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질학적 용어로 이를 후두(Hoodoo) 라고



사진 1: 모뉴먼트 공원 입구의 간판

오랫동안 불려온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카샤 카투웨’(Kasha-Katuwe)의 뜻은 “White cliffs”, 즉 “하얀 절벽”이란 뜻이다. 화산재로 만들어진 하얀 암석의 절벽이 이 곳 경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 지형

카샤 카투웨 텐트 록스 모뉴먼트 공원은 자연과학, 특히 지질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야외 교실이라 할 수 있다.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 곳의 특수한 지질학적 변화 과정이 어떻게 오늘의 이 경관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관찰과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지층이 만들어진것은 6백만 년 전에서 7백만 년 전 사이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난 헤이메즈산의 화산폭발로 말미암은 것이다. 화산폭발때 마다 엄청난 화산재가 주위를 덮었는데 이 화산재가 굳어져서 단단한 돌이 되어 약 1000피트 두께의 응회암



사진 3: 좁은 협곡으로 케니언 트레일이 들어간다.





사진 5: 원뿔(Cone) 모양의 텐트바위가 모여 있는곳. 부르는데 이곳 후두의 크기를 보면 30m(90ft)에 이르는 큰 것도 있고 1m 내외의 작은 것도 있다. 후두의 머리 되는 돌이 굴러 떨어져 비를 막아주는 머릿돌을 잃어서 비에 씻겨 내려 작아지고 있는 후두도 있다.

## 공원안내

공원 안 주차장 주변에는 주니퍼(Juniper) 나무로 덮여 있고 계곡에 가까이 갈수록 피논(Pinon) 소나무와 키가 큰 폰테로사(Ponderosa) 소나무가 많아진다.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케이브 루프 트레일(Cave Loop Trail)은 약 1.2 마일 되는데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이 트레일을 따라 가면 절벽에 움푹 파인 굴을 볼 수 있다. 이 트레일(Trail)의 동쪽 코너에서 새로 시작되는 케니언 트레일(Canyon Trail)은 계곡으로 들어가는 1.5마일 되는 트레일로서 대다수의 관광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재미있는 코스이다. 이 트레일은 아주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좁은 곳은 양팔로 좌우 벽을 만질 수 있는 정도로 좁은 곳도 지나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바람이 깊은 계곡을 지나감을 느낄 수 있다. 좁은 계곡을 벗어나면 원뿔모양의 텐트 바위(Tent Rock)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트레일은 점점 가팔라지면서 텐트 바위가 밀집된 곳을 지나게 된다. 마지막 0.3 마일은 65m(200ft) 가량을 올라가는 다소 힘든 코스가 되지만 정상에 이르면 360도 전방향으로 한눈에 들어와서 만족스런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보는 텐트 록(Tent Rock) 모양의 지형은 미국 국내에서는 이곳 밖에 없고 외국에서 볼려면 터키 (Turkey) 중부에 Cappadocia란 곳에 가야 볼 수 있다 하니 이 공원의 가치를 재 인식 하게 된다.

## 찾아가는 길

모뉴먼트의 대략의 위치는 앨버커키와 산타페 사이 중간 지점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볼 수 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앨버커키에서 가자면 I-25를 타고 북으로 약 30마일 가다가 Santo Domingo/Cochiti Lake로 나가는 Exit 259로 나온 후 좌회전하여 22번 도로로 12.2마일을 가면 코치티(Cochiti) 저수지의 댐(dam) 밑에 와서 좌측으로 꺾어지게 된다. 만일 잘못해서 직선으로 가면 코치티 저수지 댐의 끝쪽 위로 올라가게



사진 5: 사이 좋은 부부 텐트바위(Tent Rock).

된다. 저수지의 댐 밑에서 좌회전 해서 가는 22번 도로는 저수지 댐을 등지고 약 1.8 마일을 가서 FR266 도로를 만나며 여기서 우회전하면 모뉴먼트 간판이 있는 입구가 나온다. 입구에서 4.7 마일을 더 들어가면 공원주차장이 나온다.

## 입장안내

입장료는 차당 \$5.00이며 Golden Age Passport 소지자는 무료다. 여름철 입장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고 오후 5 시까지 공원에서 나와야 한다. 1월 6일, 부활절 전 금요일, 부활절, 부활절 직후 월요일, 5월 3일, 7월 13~14일, 7월 25일, 11월 1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에는 코치티 푸에블로의 문화행사 및 관리를 위해 문을 닫는다. 방문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카사카투웨 텐트록 내셔널 모뉴먼트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lm.gov/visit/kktr/>

## 인근지역 관광

텐트록 모뉴먼트를 다녀오는 길에 쉽게 들릴 수 있는 추가 관광지로 아래의 두곳을 소개한다.

### 1. 코치티 호수 (Cochiti Lake)



사진 6. 코치티 호수의 방문객센터(Visitor Center)에서 본 호수와 댐.

엄격히 따지자면 저수지라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호수(Lake)라고 부르고 있다. 리오 그란데 강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든 이곳의 코치티 댐은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돌과 흙을 쌓아서 만든 것이다. 댐의 길이가 무려 5마일이나 된 이런 종류의 댐으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것이다. 미 육군 공병단에 의해 1965년 공사를 시작해서 1975년에 완공했다. 이 저수지에 들어오는 강은 리오 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지류인 산환(San Juan)강의 일부분이 된다. 산환강의 일부분의 물은 26마일 터널을 통해서 대륙 분수령(Continental Divider)의 동쪽으로 빼돌려서 리오 차마(Rio Chama)강으로 보내어 리오 그란데강에 합류시켜, 결국 태평양으로 흘러 가야 될 강물을 대서양으로 가게 만든 것이다. 알버커키 도시 식수와 리오 그란데 강물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산환-차마 프로젝트(San Juan-Chama Project)는 1964년 공사를 시작해서 1976년 완공했다.

코치티 저수지에서는 수영, 낚시, 보트 등을 즐길 수 있고 피크닉 장소도 있다.

## 2. 산토 도밍고 (케와) 푸에블로

산토 도밍고 푸에블로(Santo Domingo Pueblo)는 최근에 와서 공식 이름을 케와 푸에블로(Kewa Pueblo)로 바꾸었다. 알버커키에서 약 40마일 북쪽에 있는 푸에블로이다. 탠트룩스 내셔널 모뉴먼트 또는 코치티 호수로 가는 길 도중에 들릴 수도 있는 인디언 마을이다. 알버커키에서 간다면 I-25 로 30마일 산타페 방향으로 가다가 Exit 259에서 나와 22번도로로 서북쪽으로 약 4마일 가서 88번 길로 바꾸어 약 1마일 서남쪽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서게 된다.

8월 4일에 열리는 Feast Day 축제는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Corn Dance 대축제로 인디언 춤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날이다. 인디언 원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단지 푸에블로에서 사진찍는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다.

웹사이트: [www.newmexico.org/native\\_america/pueblos/santa\\_domingo.php](http://www.newmexico.org/native_america/pueblos/santa_domingo.php) ■



사진 7. 산토도밍고 미션 교회

# 뉴멕시코 칠리 디자인, 최고의 자동차 번호판 상 수상

한 주에서 America's Best License Plate Award를 두 번이나 수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5월 22일 뉴멕시코는 "Chile Capital of the World" 자동차 번호판으로 2017년 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turquoise centennial 번호판으로 같은 영예에 오른 바 있다. 자동차 번호판 수집가 협회(Automobile License Plate Collectors Association)의 Cyndi McCabe 대표는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성과라며 상업성과 요리 및 문화를 대표한 칠리 디자인에 감명 받았다고 전했다. 뉴멕시코에 이어 하와이가 2위, 와이오밍과 오클라호마가 뒤를 이었다.

번호판을 읽기 쉽고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것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ALPCA의 전 세계 수천 명의 회원이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판을 투표한 결과다. ALPCA는 올해로 48번째 시상상을 이어왔다. 수상의 배경을 볼 때 칠리 디자인 번호판의 수상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뉴멕시코 국회의원들은 인근 콜로라도와 칠리 자동차 번호판을 만드는 첫 번째 주가 되기 위해 경쟁했다.

2017년 3월, 뉴멕시코주 하원 의원들은 비상사태 선포에 동의하고 주의 칠리 디자인 번호판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칠리 번호판이 뉴멕시코의 첫 번째 사용 주가 된 것이다.

아리조나 타임즈 5-18-2018 ■





수필

# 향수(鄉愁)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선교사)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평화의 시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는 솔직히 이기적 속마음을 감추고 가면 쓴 회담 쇼(?)를 하는 저들보다는 그날 저녁 만찬 때 13세 제주 소년 오연준이 열창한 “고향의 봄” 장면이 오래 오래 기억될 만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 본다. 이런 느낌은 정치를 싫어하는 내 성격 탓이었을까?

지난 2월 25일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올림픽 찬가를 불렀던 오연준 군은 정식 곡목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감동적으로 열창했다. 이 노래 후에 순서에 없던 한 곡을 더 불러 달라던 사회자의 청을 받아 우리 민족의 동요 “고향의 봄”을 청아한 목소리로 불렀다.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 모두가 입술을 움직이며 따라 불렀던 모습은 아무리 전쟁광이라도 고향의 그리움은 버릴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울림임을 증명한 것 같다. “향수”란 이념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동지 틀고 있다. 때때로 평화와 그리울 때 슬며시 나타나는 상상의 그리움 아닐까?

동물 중 회귀성이 가장 강한 동물은 연어인가 싶다. 바다에서 자란 후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수천 리 역경의 귀향길에 들어선다. 폭포수를 뛰어오르고 세찬 급물살 강물을 몸을 흔들어 올라가다 얇은 자갈길에 비늘이 벗겨지고 때로는 곰들에게 잡혀 먹잇감이 되는 험한 길을 살아남아 고향에 다다르면 거기서 알을 낳고 어미는 죽는다. 고향에 대한 애착은 인간보다 강한 것 같다. 저들도 때를 지어 그 험한 귀향길을 오르며 “고향의 봄”을 합창하면서 아픔을 삭이는지 모를 일이다. “고향의 봄”은 우리 교회 이경화 장로님의 부친이신 이원수 작가의 동요를 흥난파 선생이 작곡하여 남북한 국민들의 함께 즐겨 부르는 민족 노래임을 이번 정상회담이 증명해주었다.

향수의 감정은 아마도 시인 정지용의 시 “향수” 이상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싶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박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고향이 그리울 때 이 시로 눈물 글썽이며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것은 어쩌면 한민족 이민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향수 해법”일지 모른다.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일제의 강압에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살아보고자 일본 유학을 하러 간 정지용 시인이 그렇게도 그리웠던 고향 집을 언어로

그렸던 한 폭의 “언어 화폭”이다. 그의 천재적 “언어 그림”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은 비슷한 가난을 살았던 모두의 가슴에 맺힌 어린 날 한의 산울림일 것이다.

나는 사실 남한에서 태어났으니 해방 직후 고향을 떠나 월남한 실향민, 목숨 하나 건지려고 무작정 탈북, 타향에서 외로운 개척의 삶을 시작한 새터민들 그들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덜할 것이다. 그런데도 조국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미국 텔레비전 방송이 귀 설고 물김치에 말아 먹는 밥이 뉴욕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으니 나도 실향민이기는 매일반 아닌가?

필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첫 부임지인 정읍 인근 용계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가난한 선생님이 따로 세 언어 살 처지가 못 돼 학교 숙직실에 신흥살림을 꾸리신 것이다. 조선 시대 명당을 잡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던 윤도(명당 혹은 못자리 잡을 때 방향 잡는 데 쓰던 일종의 조선 시대 전통적 지남반) 장인으로 국가 무형 문화재이셨던 저희 외할아버지는 시부모 모시고 살다 시앗까지 보고도 온갖 고통을 견디던 큰딸 저희 어머니를 달랠 때 늘 이런 희망을 주셨다. “네 아들 태자리가 명당이다. 고생스러워도 참고 잘 키워라.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르치는데 닥치는 대로 굶은일 하시며 생명 걸고 나를 키우셨다. 장성하여 가난한 과부 아들이 미국 이민 가게 되니 인근 시골 마을 사람들까지 “개천에서 용 났다”고 부러워했었다.

내가 자란 곳은 출생지 아닌 전북 고창군 성내면 월명동이다. 1970년 서울에 지하철이 없을 때 이민 왔다. 먹고 살기 힘들어 오랜만에 고향에 가 보니 살았던 집은 온데간데없고 외 판 동네 가난한 10여 가구는 덜렁 한 체만 남아 월명동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어난 학교도 기숙사도 개발 바람에 없어진 지 오래다. 어렸을 때 놀았던 친구 하나 남아 있는 자 없고 집도 다 헐렸다. 내 마음의 향수의 그림은 망가지고 말았다.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으니 나야말로 고향을 잃은 진짜 실향민이다.

우리 교회 김준호 장로님은 과거 월남하기 전 살았던 북한 고향 집을 구글 지도를 통해 보았다고 한다. 얼마나 가고 싶을까? 실제로 남한은 경지 정리, 토지 개발, 도로 건설 등으로 향수의 그림 속 고향 집을 다 뭉개버렸다. 무더운 여름 물장난치며 먹 감던 실개천, 얼음채로 된장 풀어 송사리 잡던 연못, 물고기와 호박에 고추 풀어 끓여 먹던 살구나무 그늘, 물통 지고

달음질치면서도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부를 수 있었던 꼬불꼬불 논길, 모이면 해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던 여인들의 웅달샘, 지금은 다 사라지고 어디 있었는지 찾기 어렵다.

사실 향수는 실질적 고향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운 것들의 중심에 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귀향해 보면 오히려 그 향수의 그림들이 깨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고향의 그리움은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간 실존의 “잃어버림”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상상의 고향을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영혼의 향수가 얹혀지는 실존의 “동화작용”일지 모른다. 고향은 없어져도 향수는 남아있으니 말이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평생을 낯선 이국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인물이 있다.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까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우겨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지구상 3/4 이상이 영육간 후손인 셈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14-16). 아브라함도 고향을 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향수를 신앙의 향수로 대체하여 평생을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한 성 곧 천국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말씀이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계인이 추앙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실존적 인간은 모두 어찌면 실향민이며 방랑자요 인생은 어차피 유랑이다. 성경은 에덴동산이 원래의 고향이었음을 밝힌다. 창조된 에덴동산과 둘러싸인 자연과 우주는 바로 내 영혼의 고향, 평화의 동산이다.

그러나 이런 평화의 동산에서 인간은 얼마 못 가 쫓겨나고 만다. “자율적 인간”으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욕망이 결국 죽음과 실향의 한을 심어준 것이다. 실향민 인간은 계속 문명과 예술을 창조 개발하여 자신을 위로하며 살려 했지만 만족이 없었다. 고통과 번민,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인간은 내면의 향수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부모의 사랑이 녹은 고향 집을 영혼의 향수로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향수란 회귀성의 본능을 가진 영혼의 산울림이라 말할 수 있다. 어찌면 인생의 종말 내면에 자리 잡은 향수의 성취로 아버지 사랑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구원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귀향길이라 명명하고 싶다.

예수님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한 청년의 귀향을 이야기로 남겨주셨다.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이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실존적 실향민 둘째 아들이 생의 밑바닥에서 과감히

일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는 비유이다. 도저히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귀향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그의 마음에 깔려있는 지울 수 없는 “향수”의 실현이었다. 아니 스스로 고향의 그리움을 뭉개버린 자신을 깨닫고 자식 아닌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김 받고 사는 것이 현재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여 옮기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대연을 베풀었다. 탕자 아버지는 못난 아들을 위해 아까운 것이 없이 탕진하는 진짜 “탕부”였던 것이다. 자기 집은 아예 없다고 생각했던 실향민 탕자가 막상 대 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탕부 아버지 사랑이었다. 성경은 탕자의 귀향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임을 강조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최후의 안식처에서 대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향수의 기대를 위해 더 좋은 고향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이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대향연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다. 지금 구원받아 참여하는 예배가 대향연을 맛보는 자리다. 실향민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귀향의 현실화인 것이다. 귀향의 현실이 믿음의 삶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미국이 내 고향이고 내가 사는 알버커키가 고향의 그림자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게는 영혼의 고향 그림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며 내가 가는 노정의 쫓대이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힘주고 새롭게 하는 마르지 않는 웅달샘인 것이다.

고향의 옛 모습은 이미 사라졌을지 모른다. 미개한 북한 땅에 훑 남아 있을지 모를 집은 언제 갈 수 있을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육신의 고향이 그리움으로 남은 것은 영혼의 진짜 고향을 꿈꾸는 울림이다. 마음의 밑바닥에 동지를 튼 평화의 향수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부터 현실화한다. 그래서 스스로 집을 떠나 유랑민을 자처한다. 그래서 믿음 따라 이민도 하고 선교도 나간다. 그것이 기독교도의 삶이다.

필자는 그래서 온 세계를 나의 사명의 땅으로 삼고 유랑하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가슴 저리도록 아파지는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도 나에게는 낯선 사명지로 떠나 내 고향을 만든다. 곧 그날이 오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을 안고 입맞춤해주실 그림을 그리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향 집들을 짓는 것이다. 그 수고를 통해 미래의 고향 집을 체험하며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사는 고향의 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뇌리에서 사라진 고향 집 대신 하나님님 새롭게 만드신 하늘의 고향을 본다. 그리고 지상에 새로 만든 고향의 그림들로 가득 가득 채운다.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일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관련사진과 새로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  
voiceofnm/**



**광야의 소리 지난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oiceofnm.kumcabq.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 Albuquerque</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Kelly Liquors #14</b>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A-1 한식 Cafe</b>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김미경 Mikyong Kim</b>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A-1 Oriental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부동산 Realtors</b>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Arirang Oriental Marke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Salon 47(황경희 Kay Latham)</b>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b>치과 Dental Clinic</b>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세탁소 Dry Cleaners</b>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공인회계사 CPA</b>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태권도 TaeKwonDo</b>
<b>Asian Pear</b> 8101 San Pedro Dr.NE, Ste D (505)766-9405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Dynamic taekwondo acad-</b>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한의사 Acupuncture</b>
<b>Ichiban Japanese: 10701</b> Coors Rd NW ABQ (505- 899-0095)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Dr. Chang: (장상순)</b>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Kelly Liquors #2</b> 5850 Eubank NE (505)291-9914	<b>의류 Clothes</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Dr. James D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b>Jasmine Thai &amp; Sushi House</b>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b>Kelly Liquors #5</b> 6124 4th St NW (505) 828-1133	<b>Best Outlet: 3300 San</b>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b>교회 Church</b>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b> 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Kelly Liquors #7</b>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Dot Clothing Co:</b>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b>갈릴리장로교회</b>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화랑 Gallery</b>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Kelly Liquors #8</b>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b>Dot Clothing Co</b>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Park Fine Art Gallery</b>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Kelly Liquors #9</b> 1903 Coors SW (505) 873-4477	<b>Fashion USA</b>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 331-9584)	<b>화원/원예 Nursery</b>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Kelly Liquors #10</b> 4312 Coors SW (505) 877-2777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Osuna Nursery: 501 Osuna Rd</b> NE, ABQ (505-345-6644)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p><b>사진관 Photo</b></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라스쿠르세스 장로교회: 200 E. Boutz rd, Las Cruces, Las Cruces, NM 88001 전화: (915)329-3451</p>	<p><b>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b></p>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b>백화점 Mart</b></p> <p>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p>
<p><b>중재서비스</b></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b>병원 Clinic</b></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b>식당 Chinese Restaurant</b></p> <p>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p>	<p><b>베이커리 Bakery</b></p> <p><b>베이커리 B&amp;B(양성권)</b>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p>	<p><b>식당 Restaurant</b></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p><b>단요가 Dahn Yoga</b></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p><b>리커스토어 Liquors</b></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p><b>식품 Korean Grocery</b></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p><b>라스베가스 Las Vegas</b></p>	<p><b>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b></p>	<p><b>산타페 Santa Fe</b></p>	<p><b>교회 Church</b></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p>	<p><b>치과 Dentist</b></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b>라스크루세스 Las Cruces</b></p>	<p><b>건강식품 Health Food</b></p> <p>인성내출혈: Los Alamos (505-662-9681)</p>	<p><b>손톱미용 Nails</b></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p>	<p><b>화밍톤 Farmington</b></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b>공인회계사 ACC</b></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b>미장원 Hair Salon</b></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p><b>변호사 Law Firm</b></p> <p>노영준 변호사 Cuddy &amp;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p>	<p><b>상점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b>카페/ 선물 Cafe/Gift</b></p> <p>Big Chair Cafe &amp;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p>	<p><b>교회 Church</b></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p>	<p><b>변호사 Law Firm</b></p> <p>Greg Camp 변호사 505-231-6848 451 Cerrillos Rd. Santa Fe, NM87501 (아내:이윤정 한국어통화 405-655-2599)</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p>	<p><b>상점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b>교회 Church</b></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p><b>리오란초 Rio Rancho</b></p>	<p><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p>	<p><b>상점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p><b>교회 Church</b></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p><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b>교회 Church</b></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p>	<p><b>상점 Store</b></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7/8월호

발행일 : 2018.7.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9-10월호 원고는8월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 KELLY LIQUORS 구인

1903 Coors Blvd SW.  
Albuquerque, NM 87121

켈리 리퀴어에서 일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토,일,월,화 12:00-9:00PM  
(남, 여 상관없음) 연락처: 505-470-5559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mailto: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http://www.R1newmexico.com)

505.883.9400